

“전북 체육의 옛 명성 되찾자”

전국체전 결단식

선수 1189명 참가
조광희·정영택
도체육회 부회장 등
발전기금 쾌척

“전북인의 자긍심 함양과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이 필승을 다짐했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광선)는 5일 도 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제104회 전국체전 출전 전북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이날 결단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도내 각 기관장, 언론사 대표, 도 체육회 임원과 고문, 경기단체장, 선수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 전북 체육의 옛 명성을 되찾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결단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출전 선수단 소개, 단기수어, 선수지도자 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전북 선수단의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전북 체육 발전을 바라는 소중한 마음으로 1박 2일 동안 익산시체육회(전북체육회 부회장) 회장은 1000만원, 전북클러스터스포츠연맹 정영택(전북체육회 부회장) 회장은 500만원의 체육발전기금을 전달했다.



5일 전라북도 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출전 전북 선수단 결단식에 김관영 도지사(2줄째 오른쪽)와 정광선 도체육회장,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등 도내 각 기관장, 도 체육회 임원과 고문, 경기단체장, 선수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전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라북도체육회 제공)

또 전북세팍타크로협회는 500만원, 익산시체육회 직원 일동은 200만원, 전북스포츠클럽협의회는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각각 냈다.

개최도시 목포시를 비롯한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펼쳐지는 이번 전국체전에 전북은 총 1712명의 선수(1189명)와 임원(523명) 등이 출전한다.

전북 선수단 단장인 정광선 도 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전북의 명예를 걸고 우리 전사들이 출격을 대기하고 있다”며 “지난 훈련이 험하지 않게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전북을 대표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은 도민을, 또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묶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며 “대회 기간 (저도) 현지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전북 선수단은 전북의 자존심이며 180만 전북도민이 항상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것을 알아 달라”며 “정광선 회장을 비롯한 체육 관계자들과 함께 열악한 체육 환경도 개선해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체전 사전경기로 9일부터 배드민턴과 하키, 당구 등 일부 종목이 예정돼 있어 메달 획득 소식을 들려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군산대 출신 장상원, 항저우AG 카누 은메달 2개

남 스프린트 2인승 500m 결선서 조광희와 1분37초690
남 카약 4인승 500m 결선전서 조현희 등과 1분25초006



국립군산대학교 체육학과 졸업생(11학년)인 장상원 선수(사진)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에서 은메달 두 개를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

장상원 선수는 지난 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푸양수상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카누 남자 스프린트 카약 2인승 500m 결선에서 조광희 선수와 조를 이뤄 1분37초690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한국 카누 첫 번째 메달인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3일에는 남자 카약 4인승 500m 결선전에서 조광희, 조현희, 정주환 선수와 팀을 이뤄 1분25초006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에서 두 개의 은메달을 수확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남원시청 소속 정재민, 항저우 AG 복싱 동메달

92kg급 준결승전서

남원시청 소속 정재민 복싱 국가대표 선수(사진)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로 9년 만에 한국 복싱에 첫 메달을 안겼다.

동메달은 지난 1일 항저우 체육관에서 치러진 92kg급 준결승전에서 타지키스탄의 다블라트 불타예프 선수와의 경기에 이집게도 판정패로 동메달을 획득한 것이다.

정재민 선수는 2021년 남원시청에 영입되어 2023년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기량을 선보였으며, 이번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로서 남원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정 선수는 “국민들께서 복싱이라는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침체에 빠진 한국복싱이 반드시 반등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있을 전국체전에서도 전라북도 대표 선수로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태권도원을 주목해주세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장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태권도장 할인 상품’을 출시하며 참가 도장 모집에 나섰다.

태권도장 할인 상품(이하, 도장 상품)은 10인 이상의 태권도장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당일 또는 1박 2일 동안 태권도원의 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도장 전용 상품이다. 이번 기획 상품은 획기적인 무료·할인 혜택을 반영해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장 할인 상품 출시... 참가 도장 모집

관장·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도심에서 벗어나 70만 평 태권도원 자연에서 수련과 체험, 캠프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먼저 당일 상품은 태권도원 입장과 모노레일 탑승 이용료를 무료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체험관 YAP과 플레이온 등 실

내·외 액티비티 콘텐츠 요금을 대폭 할인 하는 등 초등학교 1인 기준 1만3,000원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1박 2일 상품은 객실 이용 요금 50% 할인을 비롯해 태권도 특화 콘텐츠인 전통무예 체험을 포함하여 공동체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무료로 대관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구성했다. 특

히 숙박과 식사, 콘텐츠 이용 등을 모두 이용하면서도 3만원대로 구성,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2020년부터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광고 제작 등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라며 “이번 도장 상품은 태권도원 방문에 따른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태권도장이 찾아오는 진정한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김제시체육회, 전국체전 김제시선수단 훈련장 찾아 격려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는 지난 4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는 김제시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종목별 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격려했다.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김제시 선수단은 씨름, 하키, 태권도, 수상스키, 레슬링 등 5개 종목에

총 32명이 참가한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힘든 훈련을 묵묵히 소화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감사드리고, 부상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위상과 명예를 높이는 데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부안
2023 부안노을축제
Buan Red Sunset Festival

2023. 10. 13.(금) - 15.(일)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일원
주관: 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